



1 식어가는 성장엔진... 투자-수출-건설 '트리플 다운'

만들어도 안팔려... 재고율 최고치
물가 안정화 위해 완화기조 유지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소폭 늘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 수출 등은 대폭 줄었다.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늘어나고, 놓고 있는 공장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1월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 감소세다. 생산 활동에 쓰이는 기계류 투자가 줄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탓이다.

건설투자도 건설사의 일감 수주가 줄면서 8.9% 감소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넘긴 수출도 최근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지

<주요 경제성장지표(전기대비)> (단위: %)

	2016	2017		2018				IV ²⁾
		연간	IV	연간	I	II	III	
실질GDP	2.9	3.1	-0.2 (2.8)	2.74	1.0 (2.8)	0.6 (2.8)	0.6 (2.0)	1.0 (3.1)
(민간소비)	2.5	2.6	1.0 (3.4)	2.8	0.7 (3.5)	0.3 (2.8)	0.5 (2.5)	1.0 (2.5)
(정부소비)	4.5	3.4	0.5 (4.1)	5.6	2.2 (5.8)	0.3 (4.8)	1.5 (4.6)	3.1 (7.1)
(설비투자)	-1.0	14.6	-0.7 (8.6)	-1.7	3.4 (7.3)	-5.7 (-3.0)	-4.4 (-7.4)	3.8 (-3.3)
(건설투자)	10.3	7.6	-2.3 (3.8)	-4.0	1.85 (1.8)	-2.1 (-1.5)	-6.7 (-8.9)	1.2 (-6.0)
(상품수출)	2.1	3.8	-5.6 (0.1)	3.9	4.5 (1.5)	0.1 (4.1)	4.7 (3.4)	-2.9 (6.4)
(상품수입)	3.3	7.4	-4.5 (1.6)	1.7	7.1 (4.0)	-3.6 (0.9)	-0.6 (-2.0)	1.2 (3.8)

주: 1) ()내는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18년 4/4분기는 속보치 기준. /자료=한국은행

난해 12월 수출은 1.2% 감소한 484억 6000만 달러(54조1700억원)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부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0%로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다. 작년 10월 106.9%에서 11월 111.7%로 상승하더니 12월에는 4.3%포인트 더 올랐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재고율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4.4%보다 더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니 이를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월 경제전망에서 국내 수요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올해 소폭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GDP 갭률은 지난해 상반기 5년 반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다시 하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GDP 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다. 경기가 얼마나 과열 또는 침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GDP 갭률이 플러스이면 수요 측을 중심으로 인

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면 경기가 부진해 수요 측 물가에는 하방압력이 발생한다.

GDP갭률의 마이너스로 가면서 근원물가에 하방압력을 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연간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을 1.5%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방치 1.7%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게다가 근원물가 둔화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원물가는 지난해 전년 대비 1.2% 상승, 이는 지난 1999년 0.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5년 2.2%에 이르렀지만 이후 1%대 중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에 1%대 초반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한은은 국내경제가 설비,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에는 이러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2 소비 늘어도... 일자리 연결 안 돼 '고용참사' 지속

민간소비 증가, 일시적 현상 가능성
실업률 갭 확대... 7년 6개월만에 최고

지난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어서는 등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직접세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부의 재정효과가 민간소비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지표가 '참사'로 불릴 만큼 실업률이 높아진 데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결국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률 추이> /자료=통계청

	2018년1월	2018년10월	2018년11월	2018년12월	2019년1월
실업률(%)	3.7	3.5	3.2	3.4	4.5
• 15~29세(청년층) 실업률	(8.7)	(8.4)	(7.9)	(8.6)	(8.9)
• (25~29세)	(8.1)	(8.1)	(7.6)	(7.9)	(7.9)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2.8% 늘어났다. 이는 2011년 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간소비 증가율은 4.4%로, 경제성장률 3.9%보다 높았다.

한은은 직접세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주 52시간 도입과 '워라벨' 문화의 확산에 따라 문화 서비스 지출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소비 증가세는 연

간 GDP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전년 대비 1.9% 상승한 이후 2014년 1.7%, 2015년 2.2%, 2016년 2.5%, 2017년 2.6%, 2018년 2.8%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13년 전년 대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급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열풍에 따른 '깜짝' 효과에 불과하고, 부진한 고용지표 등을 고려하면 가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다. 소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내구재 증가율은 6.2%에 달했다. 여름철 폭염과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중산층의 가전 구매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고가 차량 등 내구재가 증가했고 미세먼지와 관련해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리고 있다"며 "이런 효과는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지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월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저다.

실업률 갭(Gap)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실업률 갭은 0.274%포인트로 지난 2011년 1분기(0.295%포인트)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갭이란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에서 자연실업률(한국은행 추정)을 뺀 값이다. 자연실업률은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뜻한다. 실업률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이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은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3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지속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4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

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492조4000억원) 대비 22조원(1.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가계부채 증가액은 정부의 각종 가계대출규제로 전분기(24조1000억원)와 전년 동

기(31조4000억원)에 비해 모두 축소됐다. 이는 지난 2014년 3분기(20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급증기인 2015~2017년에 평균 30조5000억원씩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액이 줄었다.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6.7%로 지난 2014년 4분기(6.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희주 기자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 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김태영선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